



報 道 資 料

이 자료는 2006년 4월 13일 (목)
조건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외소비 급증 현상의 이해

허석균 KDI 부연구위원

- 최근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함께 해외소비의 비중 또한 빠르게 상승하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 바 본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소비 급증의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계량분석에 의하면 최근의 해외소비 급증세는 주로 원화가치의 움직임 및 외환거래규제의 완화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GDP 혹은 민간소비 대비 해외소비의 비중은 일차적으로 외환거래규제 완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동해 온 것으로 보임.
 - 99년과 01년에 시행된 1,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는 GDP 대비 해외소비 비중을 각각 0.3%p, 0.6%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민간소비 대비로는 0.6%p, 1.2%p 증가)
 - 또한 일상적으로는 실질실효환율로 평가되는 원화가치의 추이에 따라 해외 소비가 증감하여 온 것으로 나타남.
 - 실질실효환율의 1%p 상승에 해당하는 원화가치의 하락은 GDP 대비 해외 소비 비중을 0.025%p 감소시킴.(민간소비 대비로는 0.05%p 감소)
- 위 분석결과는 최근 해외소비 급증이 일단은 ① ‘시장이 개방될 때 발현되는 비교우위 효과’ 와 ②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추세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현상임을 시사
 - 외환거래자유화로 소비자의 이동에 의한 ‘소비의 국제화’가 가능해지면서 서비스소비 등에서 시장개방 효과가 발생하였고, 우리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소비가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평균노동생산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비교우위가 낮은 것으로 보임.(IMD 자료)

- 이 같은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 및 서비스수지의 적자 그리고 해외소비의 증가는 어느 정도 제조업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의 이면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동시에 최근 몇 년간 원화가치의 상승추세가 지속되면서 해외소비의 상승세가 유지된 측면도 존재

- 또한 1인당 실질 GDP는 여행수지(또는 해외소비)를 악화(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소비가 소득과 동반 증가하는 정상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

■ 한편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가 경제적 부존자원이 아닌 제도적인 규제환경에 따른 경쟁력 저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시사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검토될 필요

●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완화 및 개방정책 등을 시행하는 것은 서비스수지 및 여행수지개선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내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

-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의 질, 기업관련입법의 경쟁력 등이 우수할수록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수지가 어느 정도 제도적 요인에 영향 받고 있음을 시사

- 200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에서 국제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국제 평균을 하회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문 의 : 허 석 균 거시·금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958-4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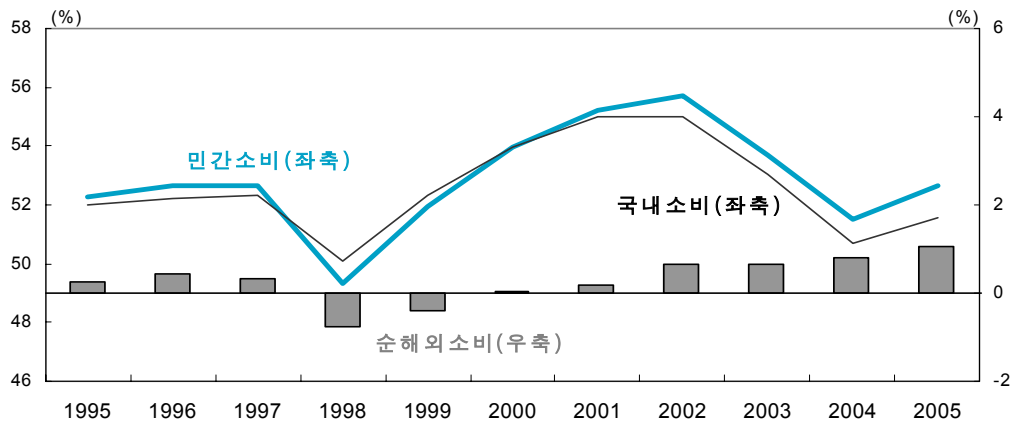
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

TEL : 958-4030 FAX : 960-0652 E-mail : press@kdi.re.kr

1. 배경

- 최근 전반적인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중 해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점이 주목되고 있음.
- 1998년 경제위기 기간 크게 감소하였던 해외소비는 이후 꾸준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순해외소비의 추이(GDP 대비 비중, 명목)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해외소비의 증가세는 국내소비의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 가운데 해외소비의 기여분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2003년부터 2005년 1분기에 걸쳐 민간소비 증가에 대한 해외소비의 기여분이 국내소비의 기여분을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났음.

<표 1> 해외소비의 민간소비 증가율 기여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연도 항목	2001	2002	2003	2004	2005 I	2005 II	2005 III	2005 IV
민간소비(A)	4.9	7.9	-1.2	-0.5	1.6	3.0	4.0	4.2
해외소비	287.8	504.4	9.3	31.1	54.8	90.5	51.3	18.2
해외소비에 기인한 민간소비 증가율(B)	0.2	1.1	0.1	0.4	0.9	1.3	1.2	0.4
국내소비에 기인한 민간소비 증가율(=A-B)	4.8	6.8	-1.3	-0.9	0.7	1.7	2.8	3.8

주: 해외소비에 기인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순해외소비(거주자의 해외소비 -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에 전년동기의 해외소비 비중(민간소비 대비)을 곱한 값.

자료: 한국은행.

- 본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소비 급증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급증의 원인분석

- 계량분석에 의하면 최근의 해외소비 급증세는 원화가치의 움직임 및 외환거래규제의 완화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의 회귀분석은 GDP 혹은 민간소비 대비 해외소비의 비중이 일차적으로는 외환거래규제 완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동해 왔음을 보여 줌.
 - 외환시장의 제도 변동으로는 1999년 4월과 2001년 1월에 시행된 1,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고려
 - 분석결과 1,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는 해외소비의 GDP 대비 비중을 각각 0.3%p, 0.6%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민간소비 대비로는 0.6%p, 1.2%p 증가)
- 또한 일상적으로는 실질실효환율로 평가되는 원화가치의 추이에 따라 해외소비가 증감하여 온 것으로 나타남.
 - 실질실효환율의 1%p 상승에 해당하는 원화가치의 하락은 해외소비의 GDP 대비 비중을 0.025%p 감소시킴.(민간소비 대비로는 0.05%p 감소)

<표 2> 해외소비 비중의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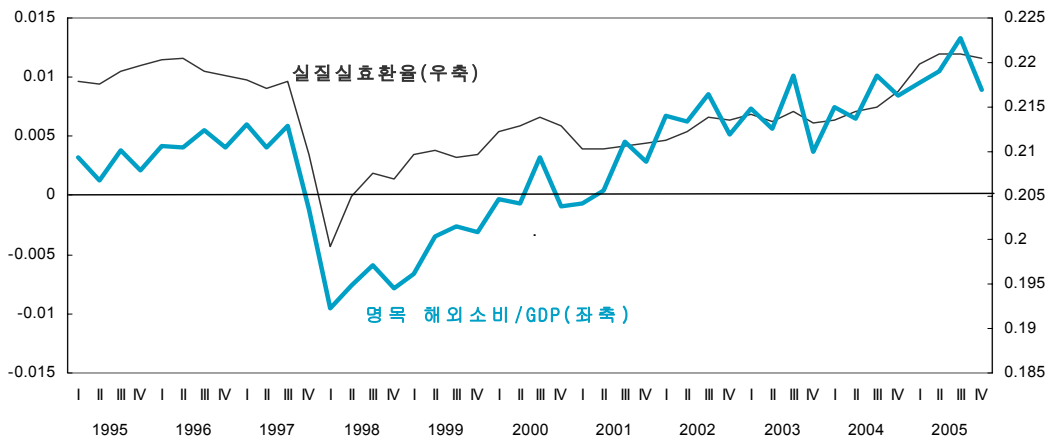
$$\begin{aligned}
 (1) \quad \frac{\text{해외소비(명목)}}{\text{GDP(명목)}} &= 0.119_{(5.49)} \cdots -0.025_{(-5.38)} \cdots \text{로그실질실효환율} \\
 &\quad -0.003_{(-1.77)} \cdots 1997\text{년 외환위기 더미} \\
 &\quad +0.003_{(3.07)} \cdots 1999\text{년 외환자유화 1단계조치 더미} \\
 &\quad +0.006_{(9.19)} \cdots 2001\text{년 외환자유화 2단계조치 더미} \\
 &\quad -0.001_{(-1.13)} \cdots 2\text{분기더미} + 0.001_{(2.18)} \cdots 3\text{분기더미} \\
 &\quad -0.001_{(-2.13)} \cdots 4\text{분기더미}, \quad J=0.656, \quad p\text{-값}=0.751 \\
 \\
 (2) \quad \frac{\text{해외소비(명목)}}{\text{민간소비(명목)}} &= 0.237_{(5.98)} \cdots -0.051_{(-5.88)} \cdots \text{로그실질실효환율} \\
 &\quad -0.005_{(-1.74)} \cdots 1997\text{년 외환위기 더미} \\
 &\quad +0.006_{(3.24)} \cdots 1999\text{년 외환자유화 1단계조치 더미} \\
 &\quad +0.012_{(9.49)} \cdots 2001\text{년 외환자유화 2단계조치 더미} \\
 &\quad -0.001_{(-0.81)} \cdots 2\text{분기더미} + 0.003_{(2.78)} \cdots 3\text{분기더미} \\
 &\quad -0.002_{(-1.73)} \cdots 4\text{분기더미}, \quad J=0.944, \quad p\text{-값}=0.624
 \end{aligned}$$

주: 1) 실질실효환율의 내생성을 감안하여 실질실효환율의 3기(t-1, t-2, t-3)까지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채택하였으며, 추정에는 일반화된 적률 추정법(GMM)을 적용
 2) 1997년 외환위기 더미는 1998년 1분기를, 1999년 외환자유화 1단계조치 더미는 1999년 2분기를, 2001년 외환자유화 2단계조치 더미는 2001년 1분기를 각각 기점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변수들임.

● 이처럼 해외소비 변동이 원화가치 및 외환거래규제정책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은 [그림 2]를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음.

-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양자 간에는 수준(level)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1,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2001년 이후 그 차이가 거의 사라진 모습

[그림 2] 해외소비 비중 및 실질실효환율의 추이



주: 실질실효환율은 역로그실질실효환율(=1/로그실질실효환율)을 사용하여 그렸으며, 이는 원지수가 GDP 대비 해외소비 비중(명목)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감안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KDI.

3. 해석 및 추가분석

■ 위의 분석결과는 최근 해외소비 급증이 일단은 ① ‘시장이 개방될 때 나타나는 비교우위 효과’ 와 ② 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추세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현상임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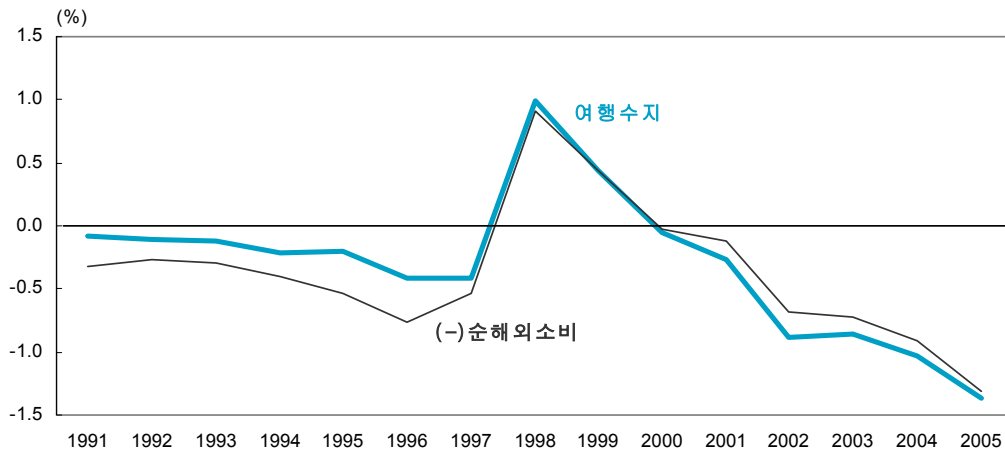
- 외환거래자유화로 소비자의 이동에 의한 ‘소비의 국제화’가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소비 등에서 시장개방 효과가 발생하였고 우리 서비스산업에 경쟁력이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외소비가 증가
- 동시에 최근 몇 년간 원화가치의 상승추세가 지속되면서 해외소비의 상승세가 유지된 측면도 존재

가. 상품수지 흑자와 해외소비

■ 최근 해외소비의 급증이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해석은 해외소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가 상당 부분은 제조업 비교우위와 상품수지 흑자의 반사 현상일 수도 있음을 시사

- 해외소비 자료를 국가별로 수집하여 비교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자료의 획득이 용이하고 대리변수로서 사용가능한 여행수지(경우에 따라서는 여행수지를 포함하는 서비스수지)를 중심으로 분석
 - IMF의 『국제수지통계』의 각종 수지자료를 분석에 사용
 - 우리나라 해외소비와 여행수지의 관계를 감안하면 여행수지가 해외소비의 적절한 대리변수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그림 3] GDP 대비 순해외소비와 여행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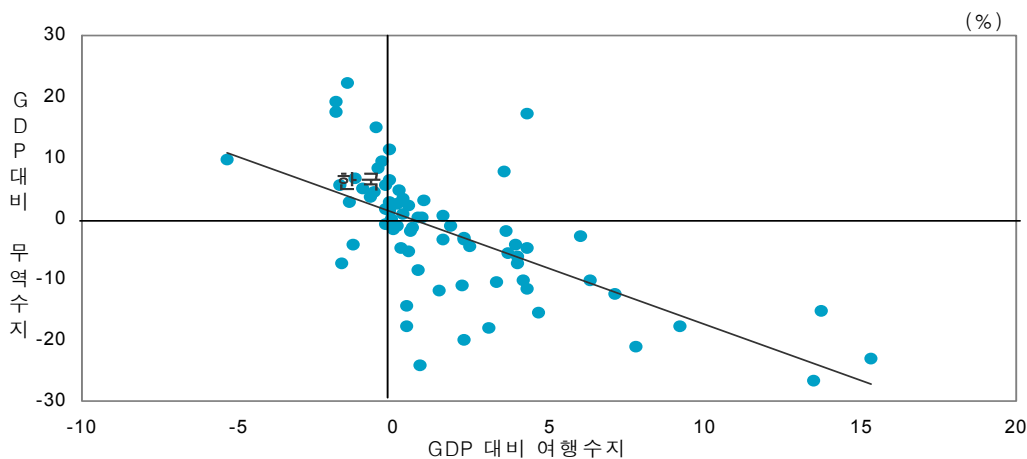
- 국가별 횡단면 자료 분석에서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경제는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여 비교열위인 서비스를 수입하고 있음을 시사

- [그림 4]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2분면과 4분면에 위치하고 있어 상품수지가 흑자(적자)인 경제는 여행수지는 적자(흑자)인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text{무역수지의 비중} = -1.84_{(-7.01)} \dots \text{여행수지의 비중} + 0.93_{(0.87)}, R^2 = 0.416$$

주: 비중은 GDP 대비 명목수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조사대상 71개국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개년 간의 항목별 관측치를 단순평균한 것임.

[그림 4] 무역수지 대 여행수지 (2000-2004년 평균)



자료: IMF 『국제수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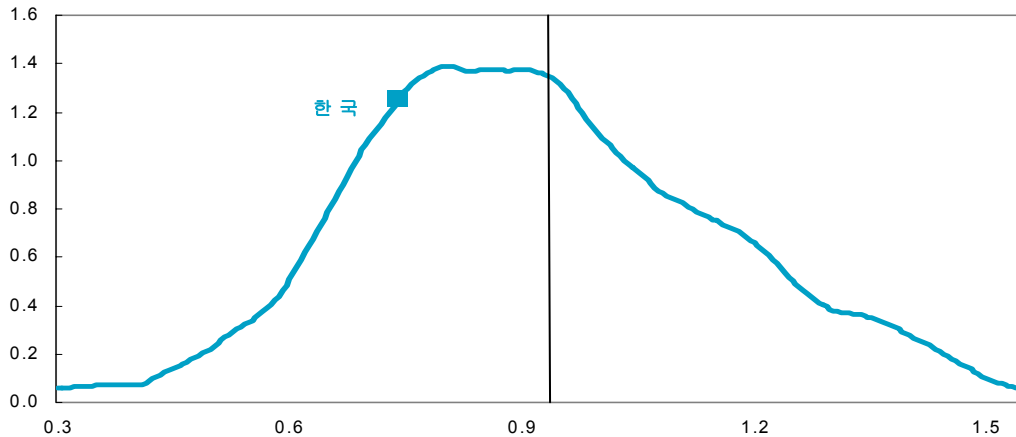
- 이 같은 관계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해외소비 증대가 어느 정도는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의 대응현상임을 시사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국제적 추세선에 상당히 가깝기는 하나 추세선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여행수지적자의 비중이 무역수지흑자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을 의미
- 서비스업의 비교열위가 해외소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국제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해외소비 비중의 증대는 이를 반영하는 현상일 가능성
 - <표 3>의 회귀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비교우위가 여행수지(또는 해외 소비)를 개선(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비교역재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산업의 비교우위가 소비자의 국경 간 이동을 전제로 하는 해외소비의 감소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 반면에 1인당 실질 GDP는 여행수지(또는 해외소비)를 악화(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소비가 소득과 동반 증가하는 정상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비교우위가 낮은 것으로 보임.([그림 5] 참조)

<표 3> GDP 대비 여행수지에 대한 회귀분석

$$\frac{\text{여행수지(명목)}}{\text{GDP(명목)}} = 0.025_{(2.25)} - 0.005_{(-4.19)} \times \text{로그1인당실질GDP} + 0.027_{(4.87)} \times \text{제조업대비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 R^2 = 0.24$$

주: 1) 추정 계수의 표준편차는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White 방법으로 계산
 2)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서비스업 종사 1인당 서비스부문 GDP를 제조업 종사 1인당 제조업 부문 GDP로 나눈 수치(IMD)"임.
 3) 분석자료로는 2001년~2004년 사이의 IMF 『국제수지통계』와 IMD 경쟁력지수를 사용

[그림 5]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국제분포 (2004년)



주: 세로선은 국제 평균을 의미함.
자료: IMD 경쟁력지수.

나. 제도적 왜곡에 의한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 가능성

■ 남는 문제는 현재의 서비스산업 비교열위가 제도환경의 왜곡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

-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가 자연조건, 노동력의 질 등 경제적 부존자원의 조건이 아니라 경쟁저해 등 제도규제 환경에 기인하였다면 이는 정책적 대응을 요구

(1) 제도환경과 서비스산업 생산성의 관계 검증

■ 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①제도환경의 질, ②제도적 요인으로 경쟁력이 영향 받는 교육체계의 효율성 등이 서비스산업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

- 제도환경의 질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기업관련입법의 경쟁력 지수'를, 그리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교육시스템의 유용성 지수'를 채택하였으며 소득효과와 가격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로그 1인당 실질GDP 등을 포함.
- 또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서비스업 종사 1인당 서비스부문 GDP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

<표 4> 서비스부문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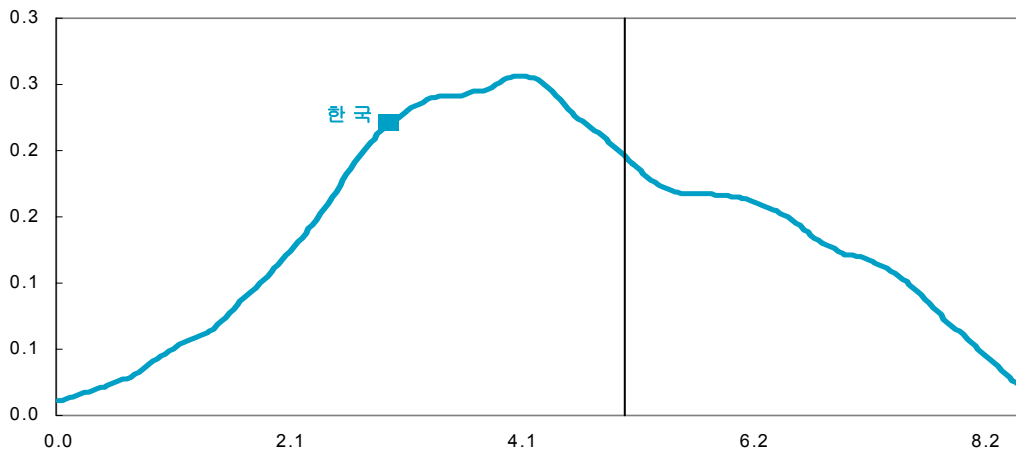
$$\text{로그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 9.491_{(48.64)} + 0.122_{(3.68)} \times \text{교육시스템의 유용성} + 0.073_{(1.70)} \times \text{기업관련입법의 경쟁력지수}, R^2 = 0.22$$

- 주: 1)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 종사 1인당 서비스부문 GDP”로 정의
 2) 교육시스템의 유용성은 “교육이 경쟁사회의 노동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측정하며, 기업관련입법의 경쟁력 지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입법이 사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정도”를 측정(IMD)
 3) 분석자료로는 2001년~2004년 IMF BOP와 동기간에 대한 IMD 경쟁력지수를 사용함.

● 분석결과 교육시스템 및 기업관련입법의 경쟁력 등은 우수할수록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수지가 어느 정도 제도적 요인에 영향 받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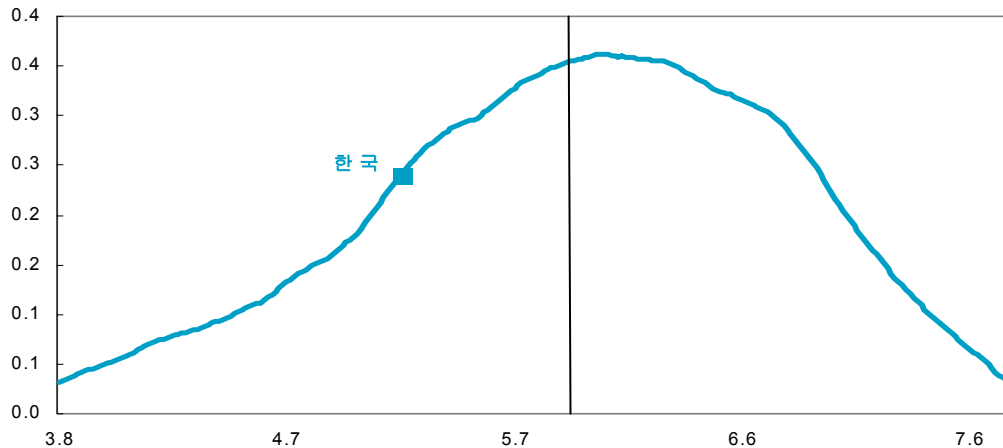
■ 교육시스템 및 기업관련입법의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200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며([그림 6]과 [그림 7] 참조), 이것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 평균을 하회하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림 6] 교육시스템 유용성 지수의 국제분포 (2004년)



주: 세로선은 국제 평균을 의미함.
 자료: IMD 경쟁력지수.

[그림 7] 기업관련입법 경쟁력의 국제분포 (2004년)



주: 세로선은 국제 평균을 의미함.
 자료: IMD 경쟁력지수.

(2)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의 세부 내역 검토

■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를 운수수지, 여행수지, 기타서비스수지 등의 세 그룹으로 세분할 때 다른 OECD국가들과 달리 여행수지와 기타서비스수지에서 모두 최하위권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이 주목됨.(<표 5> 및 <표 6> 참조)

- 운수수지는 경제위기 이전 중하위권에서 최근 중상위권으로 상승하였으나, 여행수지와 기타서비스 수지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운수수지의 개선은 국적 항공사 및 해운사의 화물 및 승객 수송실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여행수지 및 서비스수지의 적자 폭 확대가 서비스수지 악화의 원인
- OECD국가들 중 여행수지와 기타서비스수지의 적자가 동시에 큰 규모인 경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이 주목
 - GDP대비 여행수지와 기타사업서비스수지가 동시에 최하 10위에 속하는 국가는 모두 3개(한국, 아일랜드, 핀란드)이고 최하 5위에 동시에 속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표 5> 우리나라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세부 항목)의 GDP 대비 비중

	상품수지	운수수지	여행수지	기타서비스수지
1994	12/26	10/26	19/26	13/26
1995	10/27	14/27	18/27	16/27
1996	16/27	18/27	21/27	16/27
1997	11/27	9/27	20/27	13/27
1998	1/26	8/26	9/26	19/26
1999	3/27	10/27	15/27	19/27
2000	7/27	8/27	18/27	22/27
2001	8/25	9/25	17/25	21/25
2002	9/28	12/28	22/28	22/28
2003	8/28	9/28	22/28	23/28
2004	5/22	5/22	18/22	17/22

주: 1) 각 수치는 관측된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순위를 나타냄.

2) 서비스수지는 운수수지 여행수지, 그리고 기타서비스수지의 합으로 정의.

자료: IMF 『국제수지통계』.

■ **여행산업과 기타서비스산업에서 동시에 비교우위가 없음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가 어느 정도는 이들 산업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 그 공통적 요인이 제도환경일 확률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근 해외소비 급증이 어느 정도 제도환경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이것은 방증일 뿐이며 제도환경에 의해 해외소비가 급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님.

<표 6>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세부 항목)의 OECD 국가별 순위 (2004)

순위	상품수지	운수수지(A)	여행수지(B)	기타서비스 수지(C)
1	Ireland	Czech Republic	Turkey	Switzerland
2	Germany	Denmark	Portugal	United Kingdom
3	Finland	Austria	New Zealand	Sweden
4	Sweden	Sweden	Spain	Belgium
5	한국	한국	Czech Republic	Denmark
6	Canada	Belgium	Austria	United States
7	Switzerland	Poland	Mexico	Turkey
8	Denmark	Ireland	Hungary	Portugal
9	Belgium	Portugal	Poland	France
10	Austria	France	France	Australia
11	France	Spain	Australia	Germany
12	Czech Republic	Hungary	Switzerland	Canada
13	Australia	United States	United States	Spain
14	United ingdom	Mexico	Ireland	Finland
15	Hungary	Germany	Canada	Hungary
16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inland	Poland
17	Spain	Switzerland	Denmark	한국
18	Poland	Turkey	한국	New Zealand
19	Turkey	Canada	Sweden	Austria
20	Portugal	Australia	United Kingdom	Mexico
21	New Zealand	Finland	Belgium	Czech Republic
22	Mexico	New Zealand	Germany	Ireland

주: 1) 서비스 수지=A+B+C.
 2) 순위는 해당수지항목의 GDP 대비 비중으로 결정.
 자료: IMF 『국제수지통계』.

4.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최근 해외소비의 급증은 외환거래규제정책의 완화로 소비의 국제화가 가능해지면서 우리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가 드러나며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됨.
- 이 같은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와 서비스수지의 적자, 해외소비의 증가는 어느 정도 제조업의 비교우위, 상품수지 흑자의 이면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해외소비를 어떤 방식으로든 국내소비로 전환한다고 하여도 이는 환율이나 물가 등의 가격변수에 영향을 주어 기존의 수출물량을 내수로 대체하는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
 -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배분될 자원은 이미 경쟁

력을 갖고 있는 타 산업의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자원이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

■ 그러나 현재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가 어느 정도 제도 및 환경 요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일부 시사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은 검토될 필요

- OECD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만이 여행수지 관련 산업, 기타서비스수지 관련 산업에서 모두 비교열위로 나타나는 점은 제도환경 요인의 역할을 시사
- 서비스 산업에 대해 규제완화 및 개방정책 등을 시행하는 것은 서비스수지 및 여행수지 개선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내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